

우리 교회 중보기도 공동체



한마음기도회

3년의 발자취

HANMAEUM PRAYER MEETING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니

사도행전 4장 24절

2023 . 9 . 10 — 2026 . 9 . 13

01 기도회가 시작되기까지

2023년, 우리 교회는 중요한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담임목사님의 건강 악화로 안식년을 갖게 되면서, 교회는 어느 때보다 기도가 절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어른들이 먼저 무릎을 꿇자.”

은퇴 후 ‘기도직분’을 받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는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교회의 가장 든든한 기도의 기둥이 되어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자는 소망으로 기도회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10일, 첫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02 3년의 발걸음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마음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온 발자취입니다.



158회

한 주도 쉬지 않은 기도

30~40명

매주 함께한 회원

3년

한결같은 발걸음

03기도회의 목적

한마음기도회는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 왔습니다.

- 교회를 위하여
- 담임목사님의 건강과 목회자들을 위하여
- 당회와 제직, 성도들을 위하여
- 다음세대와 성덕학교를 위하여
- 선교사와 동역교회, 섬기는 기관들을 위하여
- 군 복무자와 환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하여
- 총회, 노회, 신학교를 위하여
- 그때마다 교회가 당면한 특별한 기도제목들을 위하여

기도제목은 시기마다 달라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04 기도회의 운영

기도 인도자가 기도와 찬송으로 마음을 모으면, 회원들은 한마음으로 통성기도를 드렸고, 찬송과 마무리 기도로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회개와 말씀 묵상, 찬양과 기도의 삶을 힘쓰며 중보자의 자세를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시간	장소	방식
매주일 오전 10-11시	성덕여중 시청각실	찬송 · 통성기도 · 마무리 기도

05 ‘한마음기도회’라는 이름

처음에는 ‘기도직분자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5월,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이름을 공모하였고,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처럼 “한마음으로 기도하자”는 뜻을 담아 2024년 6월 9일부터 ‘한마음기도회’라는 이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지금도 우리 기도회의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06 지난 3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회는 한 주도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폭염과 혹한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회원들은 주일 오전 10시에 성덕여중 시청각실에 모였습니다.

매주 약 30~4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했고, 첫 해에는 회원들이 자원하여 간식을 준비하며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2024년 8월 18일에는 50회를 맞아 담임목사님과 함께 감사의 시간을 가졌고, 박주성 기도안수집사의 은혜로운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3일에는 100회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뿌린 것은 기도의 씨앗이었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07 우리의 고백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기도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다음세대를 위해, 환우와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선교사들과 한국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모두 눈으로 볼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간구를 하나도 잊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08 후배들에게 남기는 부탁

2023년 9월 10일, 첫 기도회를 마친 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도회가 후배들에게 잘 이어져 언젠가 1,000회를 맞이한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어 있을까.’*

그 꿈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이제 3년(158회)을 맞아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한 세대가 시작하지만, 다음 세대가 이어가야 할 사명입니다. 이 글을 읽는 후배들이 이 귀한 기도의 바통을 이어받아, 한마음기도회가 500회, 1,000회,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이어지는 한,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것입니다.

은퇴는 사역의 끝이 아니라 기도의 사명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교회는 은퇴할 때 기도직분자로 임직 합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 기도의 직분을 받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롭고 귀한 사명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이어온 기도의 불씨를 계속 이어지게 하십시오.

우리의 이름은 잊혀지고, 우리가 흘린 기도의 눈물과 하나님 앞에 드린 무릎의 흔적은 교회의 역사와 다음세대의 삶 속에 남기를 소망합니다.

09 감사의 말씀

지난 3년 동안 한마음기도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주 기도회를 준비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회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아 주신 기도 인도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껏 섬겨 주신 그 손길이 있었기에 기도회는 은혜 가운데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기도 인도자 (가나다순)

구자순 · 김근택 · 김명옥 · 이용호 · 한정수

다섯 분의 장로님

또한 각 직분별로 연락을 맡아 회원들에게 일정을 안내하고 참석을 권면하며,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살피 주신 연락담당자들의 수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도장로	구자순 기도장로
기도안수집사	박영우 기도안수집사
기도권사	조춘남 기도권사 (김귀혜 기도권사)
기도집사 (남)	김호열 기도집사
기도집사 (여)	유수연 기도집사

무엇보다도, 연로한 몸과 불편한 건강에도 불구하고 주일 아침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우리 교회의 든든한 영적 기둥이 되었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수고를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헌신과 눈물, 사랑의 섬김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지켜 왔고, 여러분의 헌신이 오늘의 한마음기도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건강과 평강을 더하시며, 남은 생애에도 기도의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0 기도의 불길이 이어지기를

*기도는 교회의 호흡이며,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의 섬김입니다.*

한마음으로 시작한 이 기도의 불길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져, 우리 교회를 밝히는 거룩한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한마음기도회가 세대를 이어 500회, 1,000회를 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공동체로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S o l i D e o G l o r i a

2026년 9월 13일
한마음기도회 준비팀 섬김이 김근택 기도장로